

쌍용컴퓨터 사 소 식

인사

- 한국데이터통신(주)
- ▲부 사 장 황현식
 - ▲기 획 조 정 실 장 김영철
 - ▲영 업 본 부 장 유락균
 - ▲운 용 본 부 장 이원정
 - ▲정보통신연구소장 이거상
 - ▲시스템개발본부장 성승희
 - ▲DB 개발본부장 이동욱
 - ▲관 리 본 부 장 조익성
 - ▲서 울 지 사 장 오태용
 - ▲부 산 지 사 장 서용택
 - ▲행정전산개발본부장 이민원
 - ▲행정전산운영본부장 이철수
 - ▲행정전산관리본부장 김운철

프로필

崔丙恒 쌍용컴퓨터 사장



신임 崔丙恒사장은 지난 83년 7월 쌍용그룹 종합조정실 상무로 입사 쌍용과 인연을 맺었다. 86년 쌍용자동차 사장, 88년 2월 쌍용해운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崔사장은 대단히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며 학구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58년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취미는 바둑.

현대전자

주변기기 수출확대 위한 본격 마케팅 활동개시



鄭 夢 憲 사장

현대전자(대표 鄭夢憲)는 프린터, 모뎀, FDD(보조기억장치) 등의 주변기기 올해 수출 총목표액을 5천만 달러로 정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同社가 수출기로 한 프린터는 도트매트릭스 방식의 9핀과 18핀 프린터 2개 모델이며, FDD는 3.5인치용으로 IBM과 1.6MB 용

량의 모델이다.

모뎀은 일반전화선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얼업 방식으로 처리속도 1천 2백 Bps와 2천 4백 Bps의 2개 모델이다.

同社는 이들 주변기기를 미국의 6백개 판매 대리점과 유럽의 현지 지사등 기존 해외 퍼스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쌍용컴퓨터

신민, 제일상호신용 금고에 SAMS 공급



崔 丙 恒 사장

쌍용컴퓨터(대표 崔丙恒)가 서울의 信民, 대구의 제일상호신용금고에 신용금고종합관리시스템(SAMS)을 공급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여·수신관리 등 창구업무에서부터 고객·인사·급여 경영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전산화, 경영효율을 높이게 된다.

FA사업의 확대

한편, 同社는 구립 14일 세계적 공장자동화기 전문회사인 알렌 브래들리(AB)社와 국내의 공장자동화 프로젝트에 컨소시움을 형성, 공동개발과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수립의 일환으로 QIM(Quality Information Management) 기기에 대한 시스템 인티그레이터 계약을 체결했다.

QIM SI계약의 주요내용은 AB사의 영상처리기기인 비전시스템을 비롯 바코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자체개발 FA용 S/W를 통합하여 품질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同社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이 시스템에 PLC, FA용 컴퓨터, 통신기기, 메인프레임 등을 접속하여 완벽한 QIM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플랜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AB사의 제품 및 FA 관련 노하우에 자사의 S/W 노하우 등을 접속한 고부가가치의 FA솔루션을 공급하고 시스템인티그레이터로서 국내 기업의 공장자동화 추진에 적합한 토탈시스템 공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삼성전자

모니터와 터미널, CCP승인 획득



姜 弼 求 부회장

삼성전자(부회장 姜弼求)가 모니터와 터미널 등의 정보기기에 대해 캐나다의 안전 규격인 CCP승인을 획득했다.

CCP는 제품의 품질평가는 물론 생산공정 소비자보호 장치까지 총망라하는 까다로운 인증제도로 알려져 있다.

대우통신

UNIFAX DF-30 개발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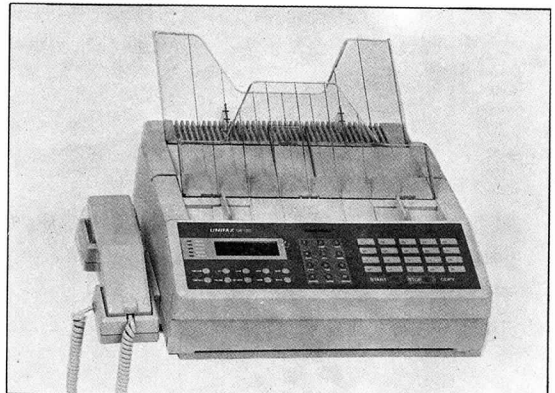


朴 成 圭 사장

대우통신(대표 朴成圭)이 동일가격대에서 가장 기능이 다양하고, 가볍고 성능이 뛰어난 팩시밀리(모델명 UNIFAX DF-30)를 자체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했다.

UNIFAX DF-30은 상대방의 팩시밀리 또는 전화응답 여부를 모니터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은혹기능과 전산원고 송신기능, 대형판넬에 조작순서와 메뉴가 대화식으로 표시되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식 메뉴기능 등이 있다.

이외에도 대형원고를 축소하지 않고 송신원고 크기와 동일하게 수신할 수 있는 B4크기 수신기능과 컴퓨터와



연결하여 프린터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연동기능 등이 있다.

同社는 이번에 개발한 팩시밀리를 수출전략 상품으로 선정, 미주시장과 유럽 아시아 지역 등으로의 수출을 계획중에 있다.

한국전자 통신연구소

초대형컴퓨터시스템 설치·가동



景商鉉 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소(소장 景商鉉)는 올해 초에 초대형컴퓨터 IBM3090-200E.VF시스템을 설치,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컴퓨터는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어 연구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익전자

다이얼업 모뎀 2기종 개발



李載桓 사장

삼익전자(대표 李載桓)가 최근 SM-1224 AD(단독형)와 SM-1224 AR(집합형) 등 다이얼업 모뎀 2기종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SM-1224 AD는 2천4백 bps급 다이얼업 모뎀으로 CCITT V24·28의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기·비동기 겸용의 전이중방식의 모뎀이다.

이 모뎀은 전화번호를 10개까지 기억하여 자동 다이얼링이 가능하며 1K바이트의 기억용량을 지니고 있다.

고침

본지 88년 12월호 특집 11난의 김도현 국민대학교 정보공학과 교수를 전자공학과로 바로 잡습니다.

編輯後記

己巳年 새해 아침이 밝았다. 지난해는 서울올림픽의 WINS를 통해 우리 情報通信技術의 잠재력을 세계에 과시한 한 해였다. 금년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先進 정보통신산업국으로의 進入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올해 情報通信産業界의 주요한 이슈로는 KTA의 民營化, 전기통신 관계법령의 전면 개편, 電算網 표준화의 본격 추진, 행정전산망의 본궤도 진입, 민간 VAN사업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加重되는 선진국의 通信市場 開放壓力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파도를 넘어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業界와 政策當局의 긴밀한 協助가 중요하다.

×

×

올 한 해도 協會는 업계와 정책당국의 確實한 架橋 역할은 물론, 정보화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努力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會員社 여러분의 적극적인 參與와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